

# “어쩔 수 없는데 언론제보까지 하나”

### 무주구천동 공중화장실 동파 언론 제보... 덕유산사무소장 불만 언행에 주민들 성토

덕유산국립공원 내 구천동 삼공탐방지원센터 안내소 옆 공중화장실이 연일 계속된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 동파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보 2월 13일자 4면)

심한 악취로 인한 탐방객과 주변상인들의 호소와 항의가 잇따르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관리소장이 적반하장 격으로 불만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주민과 소장 간의 마찰까지 치닫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소장이 연일 계속된 강력한 한파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인데 주민들이 이런 것도 이해 해주지 못하고 언론 등에 제보한 것에 대해 서운해 하더라”고 말했다.

주민 최 모씨(67·설천면)는 “공중화장실이 얼어붙어 사용을 하지 못함에 따라 주변 상가나 가정집에 들러 화장실 사용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인과 주민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터에 관리사무소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데 아니고 오히려 민원제기에 불만을 내비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자세인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고 모씨(61·설천면) 역시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화장실 동파를 막기 위해 난로 설치나 온풍기 가동 등 보온에 만전을 기할 생각은 못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감점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육군 35사단은 13일 사단 김범수관 앞에서 수류탄 교장에서 전우의 목숨을 구하고 순직한 고(故) 김범수 대위 14주기 추모식 및 헌상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35사단 제공)

덕유산국립공원 내 문제의 화장실은 지금 현재 수많은 탐방객들로 북적이며 사용자가 많지만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화장실 찾기가 어려운 관계로 물 사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을 강행하고 있어 악취발생은 물론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관리소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민들과 주변상인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인들은 “연일 한파로 수도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덕유산사무소는 보온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동파를 유발

했다”며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앞장서야 할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이 오히려 이미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로 인해 빚어진 관리소장과 주변상인들과의 파열음이 몇가지까지는 상당한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한승 50대 전주지방법원장 취임

제50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한승(55·사법연수원 17기·사진) 신임 법원장이 취임했다.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법원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한 재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좋은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각자가 행복해야 더욱 나은 재판과 민원 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모두의 행복을 위해 말하거보다는 귀를 기울이고 개개인이 작은 고충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시, 설 연휴 교통종합대책 추진

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교통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 1일 5개반 17명 등 총 70명이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또한 전주중합경기장과 전주동물원, 노송천, 전주한옥마을 노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설 당일에는 건산천 I·II, 삼천2동, 서신동, 중화산2동, 실내체육관 등 공영주차장 10곳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효자공원묘지와 천주교 공원묘지에는 1,280여 대의 주차공간을 사전에 확보, 관할 경찰서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차량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터미널 등의 주변도로는 매일 2개반 4명의 근무조를 편성해 소통위주의 현장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교통정보센터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차량 이동상황 파악 및 교통 정체지역의 탄력적 신호 운영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한다. /채규남 기자

##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 안중범 징역6년·벌금1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2)씨에게 1심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

모해 재단 출연모금과 삼성의 뇌물수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이 가지고 있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다르게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등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재단 출연금과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뇌물공여 약속과 차량대금을 제외한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이 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 회장이 K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면세점 특혜를 기대하고 재단 지원을 결정했다”며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자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와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의 실망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최씨는 남다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시,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전주시는 13일 시내에서 설맞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했다. 이날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은 합동으로 8개반 50명의 정비반을 구성, 많은 귀성객이 오가는 전주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터미널, IC주변을 각 구역별로 나누어 집중정비했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에어리프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벽보 등 유해 광고물이다. 특히 각종 행사와 공연, 축제 홍보, 음식점 광고 등을 위한 불법광고물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 게시돼 시민들의 보행안전 및 차량 통행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집중정비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 광고주와 부차·배포행위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